

저렴한 노동력 갖춘 의류 생산기지...韓·美·日·유럽에 85% 수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1명 의류공장 다녀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15% 육박
디자인·마케팅·유통능력은 취약

의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분야 중 하나다. 2013년 베트남의 의류산업 총 수출액 179억달러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13.6%를, 국내총생산(GDP)의 10.5%를 차지했다. 2013년까지 의류 산업의 평균성장률은 14.5%로, 적어도 의류 산업에서만은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핫(hot)한 국가로 부상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 의류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14.5%를 기록했고, 이 기간 베트남은 의류부문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 나타났다. 현재에도 베트남의 의류 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베트남의 의류수출은 휴대전화 및 부품품목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베트남에는 약 6천개의 의류 제조기업이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의류 제조 공장에서 숙련공들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출처: www.thefhd.net〉

있으며, 이 중 84%는 민간 기업으로 베트남 국내 노동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은 대부분 베트남 북부 최대 강인 '홍 강' 삼각주와 베트남 남동쪽 일대를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이 지역에 전체 기업 중 70%가 의류 및 섬유 산업 기업이며, 주로 위탁가공무역(CMT)으

로 의류를 제조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의류산업 수출액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의류 월평균 수출액은 2005년 월 4억달러에서 2013년 월 1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또 2014년 1~2월 수출액만 3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1% 증

가한 수치다.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를 통해 2014년 역시 의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임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세계에서 베트남 의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을 들 수 있다. 2013년 베트남의 의류 수출 85%가 이들 국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53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베트남 의류의 가장 거대한 수입국이며 2013년 기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86억달러로, 베트남 의류 수출의 48%를 차지했다. 현재 재킷, 티셔츠, 정장 바지, 와이셔츠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의류품목이다. 최근 들어 베트남 섬유 의류 업체들이 2015년 대(對)한국 수출액을 3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한국 역시 베트남의 4번째로 큰 섬유 의류 수출 대상국이다.

베트남 의류산업의 강점으로는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치안이 주변국들보다 안정되어 투자사와 거래상들에게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섬유 산업과 의류 산업을 위한 지지 기반 및 각종 지원시책들을 마련하며 외국 투자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

브 제도까지 약속하고 있다. 거기에도 저렴한 고 젊은 노동력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베트남 의류산업에 있어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강점이 있으면 약점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베트남의 디자인 능력, 마케팅, 유통 단계는 매우 취약하고 다양성이 없는 제품들은 선진국의 높은 질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다른 취약점은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기술이나 장비의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종사자들의 교육과 능력 배양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봉제만 잘하면 될 뿐이다. 그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레티하루(경북PRIDE상품) 베트남 시장조사원·영남대 박정희정책세미나대학원 재학)